

**2018신년
메시지**

복음을 들고 세상에 생명과 평화를

<요한복음 20:21~22>

총회장 **김 중 현 목사** (나니와교회)



2018년은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가 선교110주년을 맞이합니다. 100주년 기념대회를 거행한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교 110주년을 맞이하는 이 때에 새롭게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힘을 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시대와 전후 가장 힘든 때 교회를 세우고 기도하며 전도에 힘써서 지금의 교회를 우리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 믿음에 굳게 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어 평화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평안과 성령의 은혜를 부여하신 후에 주께서 주신 명령은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다 세상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우리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명하십니다.

1. 복음을 전하라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의 구속의 복음을 전할 때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고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복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은 자가 믿게 됩니다. 믿을 때 죄사함과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며 구원의 기쁨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하여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 화해의 복음을 전하라

지금 이 세상과 만물들이 신음하며 그들을 고통에서 건져줄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며 탄식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해방된 감격과 기쁨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어둠의 세력에 눌려 신음하는 세상과 피조물을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자유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복음적인 교회와 사회선교를 하는 교회로 양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몸된 교회는 복음전도와 함께

악과 어둠의 세력에 대하여 정의를 외치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사회 선교를 동시에 실행해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든지 사회선교를 하든지 우리 모두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에 굳게 서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화해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사이에 놓여 있는 막힌 담을 허시고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엡 2:14)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 평화의 사자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세상을 향하여 화해의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일본이 배타주의 역사수정주의에 근거하여 악자와 소수자를 차별하고 억압하는 현실에 대하여 항거하며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마이너리티 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억압받고 차별받는 자들의 소리를 듣고 그들이 자유와 화해를 누리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다시 일으키려는 일본의 민족주의 제국주의 세력과 싸워서 전쟁없는 평화를 이루는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가로막는 막힌담을 십자가로 허시고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분단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민족이 서로 나누어 서로 미워하고 적대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전쟁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대화의 문을 여는 가교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을 환대하고, 용서하며, 축복하고 기도하며 주의 정의를 외쳐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전하는 화해의 복음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악을 버리고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새해에는 재일대한기독교회 전국교회가 세상에 나아가 전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께서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울며 땀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特別養護老人ホーム苑長職1名募集 介護職員、生活相談員、介護支援専門員 若干名募集

募集者: 社会福祉法人 永信会

勤務地: 1. 特別養護老人ホーム永生苑
〒450-0002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2-39-11
2. 特別養護老人ホーム永生苑豊橋
〒440-0081 愛知県豊橋市大村町字花次83
(採用決定時 1、2のいずれかに配属)

入社日: 2018年4月1日

事業内容: 特養、ショートステイ、デイサービス、居宅介護支援

募集対象: 苑長職45~55歳、他職種18~40歳

待遇: 給与 要相談 (原則として、学歴・職歴に基づく)
社会保険、雇用保険、共済会退職積立金等 完備

提出書類: 履歴書 1通。保持している資格証明書の写し。
「介護福祉について」自筆レポート。(ワープロ不可)
(1200字程度, 400字詰原稿用紙×3枚以内)

書類提出先: 社会福祉法人 永信会

〒450-0002 愛知県名古屋市中村区名駅2-39-11

選考方法: 提出書類と面接により採用決定者は後日通知

提出期限: 1月31日郵送にて必着

その他: キリスト教精神に基づく社会福祉。永信会の基本理念は「福音を述べ伝え、隣人に仕える教会」とあり、これを理解し、介護福祉事業の為に自身の知識と経験を生かして、更なる施設の充実と運営に尽力できる人材を求める。

問い合わせ: 永信会本部 TEL052-541-3793

又は、副理事長 金勝正

h/TEL 090-1545-1307



신년
포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관동지방회장 장경태목사



관동지방회는 지난 몇 해 동안 큰 혼란과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방회를 섬기면서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14 : 21)

율법과 은혜에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만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율법에 기초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묵과하기 쉽습니다.

계명과 사랑 이 둘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나의 계명지킴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계명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그 계명 지킴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2018년도에는 계명을 지킴으로 총회와 지방회 및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2 : 47)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년
포부

하나가 되어 충실한 지방회

중부지방회장 최화식목사



중부지방회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기후교회가 교회당 건축이 시작이 되어 올해 봄에 완공이 될 예정이니 참으로 기쁩니다.

또한 토요타메구미전도소 이진용목사의 가입식과 위임식을 거행하고 중부지방회 일원으로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상처를 극복하려는 교회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교회의 몸부림을 봅니다. 있는 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힘쓰고 있는 각 교회를 봅니다.

따라서, 올 해는 지방회 안의 마이너리티에 관심을 갖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더욱 지방회가 하나로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목회자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며 서로 교통하는 목회자, 위로하는 목회자, 그러한 지방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facebook를 통해서 지방회의 소식을 발신하면서 동시에 각 교회의 홈페이지를 링크해서 온라인에서도 교통하고자 합니다. 대외적으로는 일본기독교단과 일본기독교교회와 함께 협력하며 선교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실과 외실에 충실하는 지방회로 변혁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총회와 각 산하 교회, 기관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되기를 소망합니다.

신년
포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방회가 되어 갔으면

관서지방회장 박성균목사



2018년 새해에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시작하고 싶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가정, 교회, 직장, 사회 속에서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더욱 더 기뻐하시는 관서지방회가 되어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세가지를 적어봅니다.

1) 영혼 구원에 더욱 더 관심을 갖는 지방회(눅15 : 6)

교회는 숫자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영혼구원에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2)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지방회(롬8 : 28)

지방회 행사가 기쁨, 감사, 은혜가 넘치도록 힘을 다하고 싶습니다.

3) 사랑과 정의의 열매가 풍성한 지방회(벤전4 : 8절, 암5 : 24)

총회헌법, 규칙, 지방회규칙을 중시하고, 사랑과 정의가 균형있게 기능할 수 있는 지방회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가고 싶습니다.

신년
포부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서부지방회장 한세일목사



서부지방회는 현재 13교회와 2전도소로 구성된 소규모 지방회입니다. 하지만 각 교회가 진심으로 가족과 같이 아끼며 사랑하는 지방회입니다. 새로운 2018년에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 서부지방회 임원진 임직원들과 함께 일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저희 서부지방회는 현재 일본기독교단 효교교구와 한일교류 신도대회(35회)를 통해서 한국과 일본의 벽을 더욱더 좁히길 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재일대한 기독교청년들과 일본 기독교청년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 앞에 깊은 교제를 나누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도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리며 겸손한 마음과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고 교회와 서부지방회를 위해서 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 위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豊かな味、豊かな心。



妻家房

SAIKABO

代表取締役 吳 永錫 (東京希望キリスト教会 長老)

四谷本店：東京都新宿区四谷3-10-25 Tel. 03-3354-0100

신년
포부

신도 지도자 세우기와 교역자 재교육을 서남지방회장 이혜란목사



1. 서남지방은 현재 변화의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1~2년 사이에 새롭게 담임목사를 모신 교회 수가 절반 이상이 됩니다. 더불어 새로운 변화와 부흥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한편 소통과 일치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회 전체 교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도록 연합 모임을 활성화 하기를 원합니다.
2. 신도들 간의 교제와 나눔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도 지도자 세우기를 위한 교육을 적극 모색하기를 원합니다.
3. 목사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목사의 자기 점검을 통하여 영, 혼, 육이 건강해지도록 협력하며, 목사들의 휴식과 재교육에 신도들의 이해와 협력의 방향을 찾기를 원합니다.
4. 지방회내의 각 부서의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연구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지혜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년
포부

주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대의식과 화해 전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이현지권사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작년 6월 제61회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정기대회를 무사히 마치고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어, 5 지방 여성회 회원 여러분과 함께 총회110주년과 2019년 전국여성회 창립70주년을 향해 걸어가는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 까지 여성회는 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맡은바 역할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 받은 자들을 대변하여 세상을 향해 문제점을 발신하는 여성회였음을 기억합니다. 또한 여성회 자신도 제 59회 정기대회 때 과감하게 기구개혁과 현장개정을 시도하여 새로운 세대로 향한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과감한 개혁은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말씀에 준하여 해결을 해 나왔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세계적으로 정치적 긴장과 전쟁도발의 우려에 마음을 조이며, 국내에서는 헤이트스피치가 심해지는 슬픔의 현장에서 우리들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물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총회 110주년의 역사는 항상 약자를 위해 일했으며 함께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맞는 미션을 주셨고, 이길수 있는 힘과 지혜도 주셨음을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의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들도 후세를 이어가는 신앙인으로서 맡은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게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화해와 평화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잊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총회11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연대하며 올해야말로 진정으로 화해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신년
포부

110주년으로 시작하는 미래를 품고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자 전국장로회 회장 오영석장로



올해는 재일대한기독교회의 귀중한 발걸음을 시작한지 110주년을 맞이합니다.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놀라운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마이노리티 선교의 큰 열매를 얻게하신 긍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작금의 성경적으로 마지막 시대를 상하기에 충분할 만큼 세계 경제와 정치가 혼란한 채로 갖은 환경문제와 대형 자연재해가 반복적으로 빈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는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110년을 지켜주신 은총을 입고 복음의 사명을 회복하여야 하겠습니다. 먼저 보내심을 받은 디아스포라교회로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바탕을 든든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한 생명을 구하는 사역의 중요성을 공유하여 나날이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저는 전국 장로님들을 대표하게 되었으니 주어진 책무를 명심하여 복음의 일익을 감당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슴아프고 주님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동경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법과 질서를 존중하여 은혜를 되찾을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총회 소속 5지방회의 연계와 공동사역을 뒷받침하는 데 역할을 감당하는 장로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선배 장로님들과 후진 장로님들의 온전한 사명의 계승을 위하여 전국 장로회의 네트워크를 활성화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장로회가 지방회와 총회의 온전한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잘 협력하고 섬기겠습니다.

장로회의 활발한 교류와 교제가 총회와 지방회의 원활유가 됨을 확신합니다. 모든 가정과 교회에 지극하신 사랑이 충만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새해 인사에 가름합니다.

신년
포부

세로운 만남을 찾아 서부와 서남과도 교류 청년회전국협의회 대표 오진아



안녕하세요! 전국청년협의회 대표로 맡고 있는 오진아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문제가 많은 가운데 연수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청년들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만큼 기쁨이 넘칩니다.

연수회는 관동, 중부, 관서지방의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모임을 가졌지만 올해부터는 서부지방과 서남지방에 있는 청년들도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으며 전국에서 청년들의 모임을 통해서 더 더욱 깊은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또 여러 입장에 처 있는 사람들과 대화를 통해서 생각하며 전국의 있는 청년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청년회 전국협의회를 응원해 주시고 도와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들은 활동해 가고 있음을 감사드리면서 2018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사카 제일 민박 OSAKA STAY

대표 정홍권 장로/안희자 권사(오사카교회)

大阪市生野区中川西3-9-6(大阪教会近く)

Tel 06-6777-7033/携帯090-8538-4433

Kakao ID : ntip0033

Email:osakastay@dune.ocn.ne.jp

http://www.osaka-stay.net

大阪市指令許可書11549号

관서지방회

감사절 축제를 개최 오사카교회에 15교회 150여명이 참가

20107년10월15일 大阪교회에서 관서지방회 여성부/장년부/청년부의 공동주최로 <제8회 감사절 축제>를 개최하였다.

제1부 예배는 청년부가 담당하고 설교는 송남현목사(오사카제일교회)가 하였다.

제2부에는 강연회가 있었고 水村光義목사(일본 전도대/津田 그리스도교회)를 초청하여 강연을 들었다.

제3부 강연에는 姜隆光집사(大阪교회)의 바이올린 듀오의 선율을 감상하였다. 지방회 산하 15교회에서 150여 명이 참석하여 성대하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장년부 윤성택)



소그룹 리더 만들기 세미나 UMC에서 4명의 강사가 방일하여 개최

지난 2017년10월 30일부터 3일간, 작년의 관동지역에 이어서 관서지역에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한인목회 강화협의회 주최로 소그룹 리더 만들기 세미나가 大阪北部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목사, 콘코드연합감리교회의 이성호목사, 워싱턴 한인연합감리교회의 김한성목사, 그리고 세계선교부 한인목회 강화협의회 사무총장인 장학순목사 등 4명의 강사를 통해서 현재 UMC에서 행하고 있는 소그룹 모임에 대한 이론과 실천을 함께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한 참석자는 “그동안 여러 세미나를 참가해 보았지만 이와같이 유익한 모임은 처음이라면서 다른 목회자들에게 적극 추천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는 신도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그리고, UMC는 작년 관동에서의 모임에서와 같이 이번 관서의 모임에서도 모든 참가자의 식사비, 교통비 등 제반 비용을 부담해 주었다. 또한 大阪北部교회 여성회가 3일동안 식사봉사를 해 주었다.



이번에 귀한 소그룹 세미나를 주최해 주신 UMC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우리 재일대한 기독교회와 UMC와의 좋은 유대관계가 계속되기를 바란다. (조영철목사)

한·재·일 NCC여성위원회 연대교류회의 개최

「화해의 여정, 우리는 어디에?」 주제로

제10회 한·재·일 NCC 여성위원회 연대 교류회의가 2017년 11월 28일(화) ~ 30일(목)까지 한국 서울에 있는 한국 기독교회관에서 열려 KCCJ여성회에서 6명이 참석했다. 이 연대 교류회의는 1996년 6월 25일에 첫 회를 시작하고 장기에 걸쳐 기독교 여성들이 연대와 교류를 계속하고 있다. 지금까지 양국의 화해와 평화, 또한 동북 아시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공동의 선교과제를 설정하고 실천해 왔다.

제10회 연대교류회의는 ‘화해의 여정, 우리는 어디에?’라는 주제로 총 30여명이 모여 개최 예배가 시작되었다. 예배 중에 성찬식도 이루어졌다. 그 후 환영 만찬이 이어져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 주제강연과 일본의 현장보고가 있었다. 일본측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재일측은 헤이트스피치에 대해 보고했다.

오후부터는 정기수요시위에 참가하고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을 관람했다. 셋째 날은 김필순 목사의 인도로 ‘미갈과 재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성서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종합 토론에서 공동선언문을 작성했다. 폐회예배에서는 이시바시 마리에 총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번 2박 3일의 교류회의 기간 동안 화해와 치유의 길에 우리가 있다는 것과 한·재·일 기독교 여성들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石橋真理恵)



윤종은목사 (横浜교회) 소천 전후의 혼란기에 재일선교에 전력



지난 2017년12월12일, 중경총회장 윤종은목사가 소천하여 코베교회에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향년90세)

고 윤종은목사는 1927년 한국에서 출생한 후 독일하여 관서학원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 유니온신학교 등을 졸업하였다. (신학박사)

1958년 목사 안수를 받고 広島교회, 西宮교회, 堺교회, 横浜교회를 목회하였고, 관서지방회장 관동지방회장 및 제35회 총회장을 등을 역임하였다.

제일 1세로서 험난한 시대의 좋은 목회자, 신학자 및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을 가지고 재일대한기독교회를 섬겨왔던 한 평생이었다. 저서 및 번역서로는 <사도적 설교와 전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약성서 개론> 등이 있으며, 유족으로는 윤성철 장로(神戸教会), 윤성택장로(大阪北部教会)가 있다.

在日コリアン文化の創造と多文化共生社会を目指して、在日本韓国YMCAは皆様と共に歩みます。



東京◆ホテル：東京で一番安く便利な宿泊研修施設。フロントは日・韓・英語に対応、24時間営業。

10名様～200名様のお会議及び宿泊研修(50名)も可能。

◆スペースYホール：200席の多目的ホール。セミナー・コンサートなどに対応。

◆韓国文化教室(チャング・カヤグム・舞踊) ◆韓国語講座

◆YMCA東京日本語学校(3ヶ月～2年、短期研修)

関西◆にほんご教室(新規開講・募集中) ◆韓国民俗芸術科(舞踊・チャンゴ)

税込	平日	休日
シングル	¥6,700	¥6,200
ツイン	¥10,500	¥9,800
トリプル	¥13,500	¥12,600
※朝食¥200(宿泊者価格)		

在日本韓国YMCA <http://www.ymcajapan.org/ayc/jp/> *会員及び教職者割引有。詳しくはお問い合わせください。

東京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101-0064 東京都千代田区猿樂町2-5-5 ☎03-3233-0611

関西韓国YMCAアジア青少年センター 〒537-0025 大阪市東成区中道3-14-15 ☎06-6981-0782